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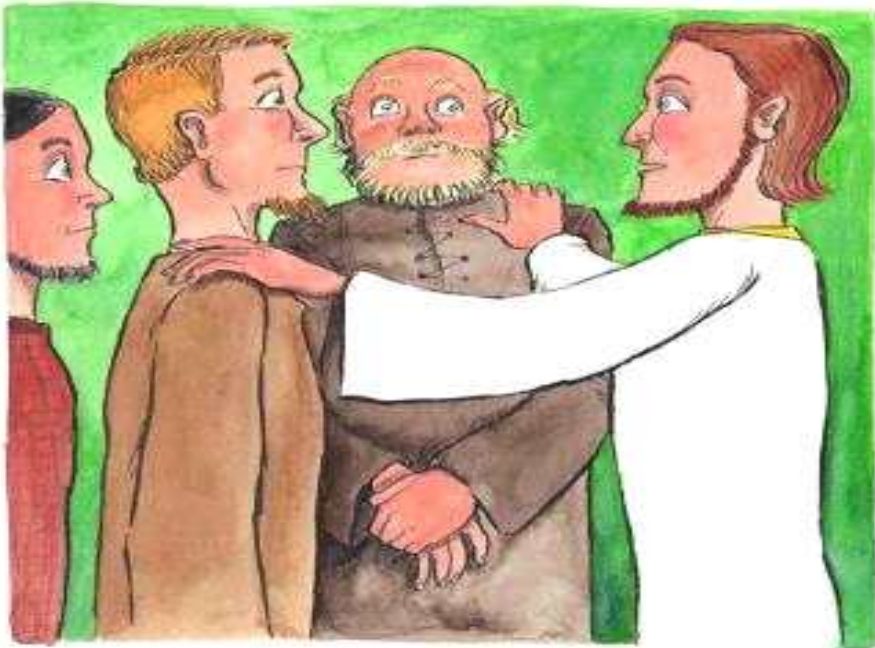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5월	
				보편 지향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오 28, 19)



▲그림: www.evangelium-in-leichter-sprache.de

◎제1독서: 신명기 4, 32-34. 39-40 ◎제2독서: 로마서 8, 14-17 ◎복음: 마태오 28, 16-20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삼위일체 대축일”

“문제는 사랑이다. 사랑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려 하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프랑수아 바리용)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고백이며,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제민 신부는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관계, 그 신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느님을 무한히 자신을 선사하는 사랑(아버지), 무한히 수용하는 사랑(아들), 무한히 연결하면서 자신을 남에게 전달하는 사랑(성령)에 대한 하나의 사랑의 사건으로 경험하였다. 아우구스티노는 이 사랑의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대가 사랑을 본다면 사실은 하나의 삼위일체성을 보는 것이다. … 보라. 여기 셋이 있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서로를 온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사랑의 관계가 서로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즉 서로의 차이를 상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신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적 생활방식을 살아가는 이들, 즉 완전한 사랑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초기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들의 차이도 크다”고 정식화하였다. …… 사랑하되 상대를 자기 안에 흡수시켜 상대의 인격적 윤곽을 지워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운데 상대를 그 자체로 나와는 다른 ‘너’의 존재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와는 다른 남인 그에게 나는 나를 선사하고,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와 하나가 되어 결합된다. 나와 남인 그를 구분 없는 사랑의 감정 속에 용해시키며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충만하게 된다. (이제민)

“가톨릭 교회의 성모님 공경” (마치며)

성모성월을 마치며 다시 한 번 성모님께 대한 교의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신앙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둘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십니다. 성모님의 ‘동정’은 예수님 출산 이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동정으로 잉태하셨고, 동정으로 출산하셨으며,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사셨습니다. 평생 동정의 의미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한 가지 징표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진술”임에 있습니다. 곧 성모님의 평생 동정은 성모님을 세상 구원의 도구로 쓰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향합니다.

셋째, 성모님께서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이 교의(믿을 교리)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교의의 의미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성모님께서 구원 받으신 첫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의 목표인 ‘구원’에 이르셨음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셨다는 것이지요.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시기에 거룩하게 되셨다는 점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승천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이 이미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성모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성모성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전구(함께 기도하심)를 청해 봅니다.

Ave Maria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주임신부님의 기획으로 성가대에서 미사 중 성모님 관련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의 **미사전 전주(Prelude)**는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흠 없이 준비된 자세”를 갖추도록 마음의 조율(튜닝)을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영성체후 묵상 연주는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돕는 동시에, 신자들에게 감동의 열매,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오르간 연주와 매주 다른 악기협연**을 통해 성모님과 함께 교종미사를 풍성하게 꾸며주고 신자들과 하느님이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연주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짜	악기(연주자)	작곡가 곡명
5/2(주일)	오르간 (김미정크리스티나)	카치니 Ave Maria
5/9(주일)	소프라노 (김영이프란치스카)	아르카델트 Ave Maria
5/16(주일)	플루트 (정남의엘리사벳)	엘가 Ave Maria
5/23(주일)	비올라 (최은선마틸다)	바흐/구노 Ave Maria
5/30(주일)	첼로 (김선경베로니카)	생상스 Ave Maria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국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다들집 양영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아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 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 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 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 축하 영 명!

김보니파시오 유치원장수녀님의
축일(6/5)을 축하드립니다.

■ **성시간(매월 첫 목요일):** 6/3(목) 10:00 대성전
*6월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하여 자비 그 자체인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 성심(聖心)을 깊이 이해하는 은총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전주 ME 183차 주말 참가 부부 모집:**

*6/6(주일)까지 사무실 신청
*일정 및 장소: 6/18(금)~6/20(주일) 평화의 전당

■ **사제의 성화의 날:** 6/11(금) 10:00 평화의 전당

*당일 본당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6/2(수)부터 매 미사 중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를 바칩니다.

《제단체 및 각 가정 구성원 단체사진》 협조 요청

코로나19로 인해 회합 및 신부님의 가정방문이 제한되어, **사목상** 교우여러분의 사진을 제공받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주임신부님 사목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방 법:**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후, 이름과 사진을 사무장 번호로 전송 (010-2670-3129)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5월28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5월 17일~5월 23일)

주일헌금:	3,876,200	교무금:	4,138,000
박순덕(안 나)	100,000		
방현주(리디아)	100,000		
김선규(요안나)	500,000		
· 감사헌금:	이점옥(데레사)	50,000	
김문자(로 사)	300,000		
익 명	100,000		
전종남(요 한)	2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 정회원(월 1만원 이상 납부) ☐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 직접납부(사무실) ☐ 계좌이체 ☐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배,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젤모) 이성숙(안젤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두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상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중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동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